

바위에 새겨진 先史時代의 비밀을 밝히는 黃龍潭교수

동북아시아의 암각화

황용운 저

民音社/A 5 신/388면/5500원

두팔과 다리를 크게 벌리고 힘차게 뛰어나는 사람의 모습, 선으로 표현된 물고기, 또는 움푹푹 패인 구멍들, 이 모든 것들이 평범한 우리네의 눈에는 누군가 바위에 그려놓은 장난스런 낙서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석기 시대 또는 청동기시대의 선조들에 의해서 제작된 암각화임을 알게 되면, 누구나 멀고 먼 옛날 그 바위 앞에 섰을 어떤 인간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 야릇한 감흥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문헌기록이 없는 선사시대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흠어진 유적을 통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태. 따라서 암각화는 선사시대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경희대 黃龍潭교수(57·경희대 박물관장 역임)는 최근「동북아시아의 岩刻畫」를 펴내 이 방면의 연구를 집대성했다. 『암각화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은 19세기 이후 20세기에 들어와서이지요. 한반도 지역에서도 암각화의 존재가 지역 주민들에게는 오래 전서부터 알려졌었지만, 그 성격과 의미가 학술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0년 이후의 일입니다』

현재 암각화가 발견된 지역은 울주 반구대를 비롯하여 7~8개 지역. 그러나 한반도 전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견될 여지가 많다고 黃교수는 지적한다.

암각화란 무엇이며 선사시대인들은 왜 바위에 그림을 그렸을까? 그 이유를 한마디로 해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유형별로 보면 物像암각화, 기하학 암각화 그리고 생산수단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性穴로 나뉘어진다. 또 기법 별로는 전면칠하기, 단순 윤곽선 칠하기, 절충형 칠하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黃龍潭교수가 고고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덴마크의 의과대학에 유학하던 시절 우연히 암각화를 접하면서부터. 1954년 오후스의 과대학에 진학했던 그는 암각화와 화석, 선사시대의 뼈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결국 57년 오후스 선사문화연구원, 60년 에스페야 박물관에서 아르바이트로 연구원 생활을 했다



현장발굴과 학술적 정립간의 연결을 강조하는 黃龍潭교수

고 한다. 분명 흥미로운 경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黃龍潭교수는 의학도의 길에서의 전환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피한다. 다만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 제국에서 발견되는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암각화의 내용은 이들을 처음 대하는 이방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주는 작품들이었다』고 밝힐 뿐이다.

보통 岩刻畫로 알려지고 있는 이들 선사시대의 유물은 엄밀한 의미에서 岩畫와 岩刻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둘을 완전히 분리하여 정리하기는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암화가 주로 제작된 문화에서도 암

각이 나오기 때문. 『암각화가 그려진 원인은 여러 說이 있지만, 선사시대의 암각화는 생활과 연결된 신앙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지요. 따라서 언제나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하느님께 물고기등의 식량 또는 농경모습을 정확히 그려 보여 드리기 위해서, 즉 풍요주술, 생산주술의 한 형태로서 그려졌다고 볼 수 있어요』

암각화는 구석기 시대에서 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신석기·청동기·철기 시대까지 골고루 제작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

동기 문화와 연관성이 높으며, 그 성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의 것과 비교연구하는 시도가 필수불가결한 상태. 따라서 이번 저서에서는 동북아시아, 즉 소련, 중국 등의 연구자료가 많이 소개된 것이 특색이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연구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구할 수 없는 공산권의 자료라 할지라도 우방국 학자들의 도움을 얻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요. 이번 책을 쓰는 과정에서도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자료들을 여러 분들의 도움을 얻어 상당히 많이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전문가의 눈에는 암각화가 어린아이들의 낙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고고학자의 눈에는 그것이 선사시대를 풀 수 있는 소중한 열쇠. 그 열쇠를 찾기 위해 고고학자는 전국을 순례한다.

『고고학은 발로 하는 학문입니다. 때로는 하루밤에 산을 두개나 넘기도 하지요. 그러나 무작정 헤매는 일은 드물며, 지역주민의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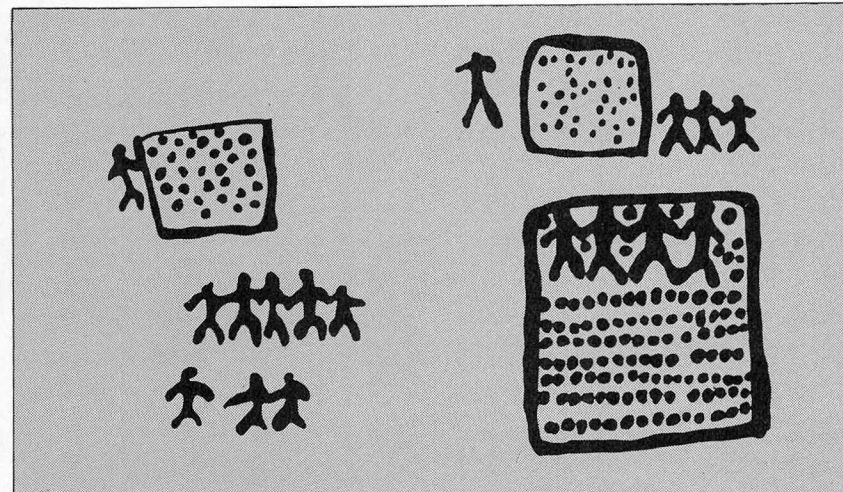
암각화가 새겨지는 곳은 대개 공통점이 있다. 즉 일종의 聖地이기 때문에 햇빛이 잘 비친다든지 또는 아주 안비치는 곳이 될 수도 있으므로 똑같은 장소를 시간을 달리하면서 성지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예가 많다고 한다.

黃龍潭교수의 발견중 학술상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은, 1971년 9월 양주군 화도면 금남리 지석묘 위에서 한반도 최초의 性穴을 발견한 일.

『갖은 고생을 한 끝에, 드디어 그것을 발견해냈을 때의 기쁨은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규명해서 역사와 연결시킬까 하는 걱정에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지요』

끝으로 黃龍潭교수는 고고학과 역사학의 관계에 대해 『문헌사학의 한계점을 벗어나 우리의 과거, 뿌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사학, 고고학, 그리고 민속학과 종교학 등 모든 인접학문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오애리 기자



남성은 인체형상으로, 여성은 점으로 표현한 청동기시대 性穴 암각화 (자바이칼 지역)